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영어 자동사구 종결성 해석에 관한 연구: 전치사 유형을 중심으로*

최정인 (부산대학교)
장경철 (부산대학교)**

Choi, Jeungin and Kyungchul Chang. 2018. A study of the interpretation of English intransitive verb phrase telicity by Korean English learners: Focus on the types of prepositions.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18-4, 509-534.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how native speakers and Korean learners of English interpret English verb phrase telicity, focusing on the types of English prepositions. 91 Korean learners of English and 11 native speak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Experimental tasks were conducted for both native English speakers and Korean learners of English (beginner and advanced).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how Korean learners of English and native speakers differentiate among English intransitive verb phrase telicity according to the prepositional types and indicated that actual (behavioral) interpretations of telicity are meaningfully influenced by the different types of prepositions for both native speakers and Korean learners of English. Especially Korean learners of English who are in the beginner group had more difficulty in acquiring English intransitive verb phrase telicity by bounded prepositions. Also, the result showed how native speakers interpret English verb phrases depending on the types of prepositions in their real life. Discussion of the findings is compared to those of relevant studies for pedagogical implications and directions of further studies.

Keywords: English prepositions, Korean prepositional particles, mother language transfer, English telicity, Korean telicity, telicity transfer

1. 서론

(비)종결성((a)telicity)이란 문장에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사건이나 화자의 행위가 종결되어서 더 이상 그 사건이나 화자의 행위가 지속되지 않는 것과 문장에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사건이나 화자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구분하는 의미적 개념이다. 문장에서 동사가 종결점(terminal point)을 가지면 종결성(telic, [+telic])을 나타낸다고 하고, 동사가 종결점을 가지지 않으면 비종결성(atelic, [-telic])을 나타낸다고 한다. 또한 비종결

* 이 논문은 2018학년도 부산대학교 박사후연수과정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1저자: 최정인, 교신저자: 장경철

성을 나타내는 자동사의 경우도 그 동사와 결합하는 전치사의 유형에 따라 종결성이 달라지기도 한다. 다음의 예문(1)을 살펴보자.

- (1) a. Alex walked out of the hotel in/*for ten minutes. [+telic]
 b. Alex drove toward the mountain *in/for a day. [-telic]
 c. Alex ran around the lake in/for one hour. [±telic]

(Zwarts 2005: 741)

Vendler(1967)의 동사 분류에 따르면 예문(1)의 *walked*, *drove*, *ran*은 행위동사(active verb)로 분류되고 홀로 쓰이면 [-telic]자질을 가진다. 그러나 (1a)와 같이 *Alex walked out of the hotel in ten minutes*는 알렉스가 10분 후에 호텔 밖으로 걸어 나왔기에 걸어 나오는 행위가 완전히 종결되어 [+telic]으로 바뀌게 되고, (1b)의 *Alex drove toward the mountain for a day*는 알렉스가 하루 동안 산을 향해 운전하였지만 정확한 종결지점이 드러나지 않기에 운전하는 행위가 완전히 종결되었는지 알 수 없어 [-telic]이다. 반면 (1c)의 *Alex ran around the lake in one hour*는 알렉스가 한 시간 만 호수 둘레를 뛰었다는 의미로 뛰는 행위가 1시간 뒤에 종결되어 [+telic]이 되기도 하고, *Alex ran around the lake for one hour*는 알렉스가 한 시간 동안 계속 호수 둘레를 뛰었다는 의미로 뛰는 행위의 종결성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아 [-telic]이 되기도 한다. 즉, (1a), (1b), (1c)는 동일한 동사 분류에 속하지만 결합하는 전치사구의 유형에 따라 종결성이 달라진다. 이와 같이 문장의 종결성은 동사 고유의 내재상 유형(inherent aspect)뿐 아니라 다양한 문장구성요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제2외국어 학습자로 하여금 정확한 문장 의미 해석에 혼동을 야기한다. 또한 각 언어에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종결성 매개변인들은 제2외국어 학습자가 정확한 문장 의미를 인식하는데 있어 방해 요소로 작용되고 있어 제2외국어 습득에 있어 종결성 전이 연구가 꾸준히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Gabriele 2010, Slabakova 2000, Yin과 Kaiser 2011), 국내에서도 한국인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종결성 전이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장혜진 2013, 최정인 2015, 2016, 2018, Kim 2015, Oh 2015).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영어 동사구 종결성 인식에 있어 정확한 종결성 해석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문장구성요소 중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전치사 유형에 따른 자동사구 종결성 해석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전치사는 영어 학습자들이 영어를 학습하는데 있어 완벽히 습득하기에 가장 어려운 항목 중 하나이며, 그 의미와 용법이 학습자로 하여금 혼동을 야기하여 영어 능력에 무관하게 모든 영어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이기동 1998, 최정인 2018, Celce-Murcia and Larsen-Freeman 1999, Cowan 2008). 더욱이 국내의 제2외국어 학습에 있어 영어 동사구 종결성 연구는 종결동사*와 목적어 유형에 따른 한국어 전이 관계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장혜진

2015, 최정인 2015, 2016, Kim 2015, Oh 2015), 전치사의 유형(types)에 따른 영어 자동사구 종결성 인식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종결성은 Vendler(1967)의 동사 분류를 위한 자질중 하나로 동사의 종류와 동사와 결합하는 명사구, 전치사구, 불변화사 등과 같은 문장구성요소에 따라 종결성 판단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Ogiela, Schmitt and Casby 2014), 한국어는 영어 종결성 체계와 다른 종결성 체계를 가지기에(김천학 2014, 노명현 2014, 박기성 2016), 영어 동사구와 대응한 한국어 동사구 종결성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어가 영어 종결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경우 전치사 유형에 따른 영어 종결성 판단에서 오류가 높다는 점에서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영어 종결성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전치사 유형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전치사 유형에 따른 영어 자동사구 종결성 판단의 차이를 논의하고자 전치사 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자동사구에 따른 영어 동사구 종결성 해석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전치사 유형에 따른 종결성 판단에서 한국어 지식의 영향이 작용하는지 살펴보고,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영어 능력과 선택한 전치사 유형에 따른 영어 자동사구 종결성의 판단이 영어 능력이 서로 다른 한국인 영어학습자 간에 동일한지 논의할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영어 원어인 화자의 전치사 유형에 따른 영어 자동사구 종결성 해석의 의미적 척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 (2)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전치사 유형에 따른 영어 자동사구 종결성 해석의 의미적 척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 (3) 영어능력에 의거한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전치사 유형에 따른 영어 자동사구 종결성 해석의 의미적 척도는 동일한가?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2.1 전치사 유형에 따른 영어 자동사구 종결성

전치사 유형에 따른 영어 자동사구 종결성 습득에 있어 한국어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영어 동사와 한국어 동사의 종결성 차이부터 논의되어야 한다. 영어 동사의 종결성은 Vendler(1967)의 동사의 어휘상 분류 기준을 정하는 자질로 먼저 제시되었으며,

* 본 연구에서는 [+telic]자질을 가지는 동사를 종결동사, [-telic]자질을 가지는 동사를 비종결동사라 명칭한다.

Vendler(1967)에 따르면 [+telic]자질을 가지는 동사는 완수동사와 성취동사이며, [-telic]자질을 가지는 동사는 상태동사, 행위동사이다. Vendler(1967)의 동사의 어휘상 분류를 토대로 Jackendoff(1972), Dowty(1979), Verkuyl(1993), Shirai와 Anderson(1995), Smith(1997) 등의 여러 학자들이 동사의 어휘상 유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였으며, 그 중 Shirai와 Anderson(1995: 744)은 다음 표 1과 같이 동사의 어휘상 분류 기준을 구분한다.

표 1. Shirai와 Anderson(1995)의 영어 동사의 어휘상 분류

동사의 종류	동사의 성질	동사의 자질	대표 동사들
상태동사 (states verb)	동작성을 가지지 않아, 그것에 작용하는 노력이나 에너지가 없어도 계속되는 의미를 지닌다.	[-종결성(telic)] [-순간성(punctual)] [-지속성(durative)]	be, have, see, seem, enjoy, like, love
행위동사 (activity verb)	계속성의 의미를 지니고 임의적인 종결성을 가지는 동사로 어떤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그 동사가 가진 성질은 동일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종결성(telic)] [-순간성(punctual)] [+지속성(durative)]	live, work, run, sing, play, fly, dance, walk, travel
완수동사 (accomplishment verb)	지속성을 가지나 단 하나의 분명한 내재적 종결성을 가진다.	[+종결성(telic)] [-순간성(punctual)] [+지속성(durative)]	tell, go to, sail to, make, send, build a house
성취동사 (achievement verb)	어떤 행동이 한 순간에 일어나는 동사이다.	[+종결성(telic)] [+순간성(punctual)] [+지속성(durative)]	die, meet, steal, notice, recognize, find out

(Shirai and Anderson 1995: 744)

표 1의 영어 동사의 어휘상 분류에 따르면 [+telic]자질을 가지는 동사는 완수동사(e.g., *tell, go to, sail to, make, send, build, a house*)와 성취동사(e.g., *die, meet, steal, notice, recognize, find out*)이다. 이와 같이 영어의 완수동사와 성취동사는 문장 안에서 의미하는 어떤 사건이나 행위에 대한 종결점을 가진다는 점에서 종결동사이다. 반면 영어의 상태동사와 행위동사는 문장 안에서 의미하는 어떤 사건이나 행위에 대한 종결점을 가지지 않아 비종결동사이다. 다음 예문(2)*를 보자.

- (2) a. Alex swam *in/for an hour. [-telic]
- b. Alex swam to the boat in/*for an hour. [+telic]
- c. Alex swam towards the boat *in/for an hour. [-telic]

(Zwarts 2005: 739)

(2)의 *swam*은 Shirai와 Anderson(1995)의 동사의 어휘상 분류에 따라 행위동사에 속하

* Zwarts(2005: 739)의 예문에서는 전치사구 *to the beach*와 *towards the beach*를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예문과 그림으로 정확히 비교하기 위해 *to the boat*와 *towards the boat*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며, 종결성을 가지지 않는 비종결동사에 속한다. 따라서 (2a)의 문장과 같이 시간부사구 *for an hour*와는 결합할 수 있으나 *in an hour*와는 결합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반면 (2b)의 문장을 보면 전치사구 *to the beach*와 결합하여 시간부사구 *in an hour*와는 결합할 수 있으나 *for an hour*와는 결합할 수 없게 되며, 종결성의 판단이 [+telic]으로 바뀌게 된다. 또한 (2c)의 문장을 보면 전치사구 *towards the beach*와 결합하여 시간부사구 *for an hour*와는 결합할 수 있으나 *in an hour*와는 결합할 수 없게 되며, 종결성의 판단은 (2a)와 같이 [-telic]이 된다. 이와 같이 동일한 동사 *swam*은 전치사구의 결합 여부와 전치사 유형에 따라 종결성의 판단이 다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Zwarts(2005)는 종결성 판단 여부에 따른 전치사 유형을 구분하였으며, 이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전치사 유형에 따른 종결성 판단

종결성 여부	전치사 종류
[+telic]	out of, onto, into, from, off, via, away from, past, to
[-telic]	towards, along
[±telic]	up, through, down, over, around, across

(Zwarts 2005: 742)

표 2에 따르면, [+telic]자질을 가지는 전치사는 *out of, onto, into, from, off, via, away from, past, to*이며 이는 행위동사와 결합 시 문장의 종결성이 [-telic]에서 [+telic]으로 바뀌게 된다. 반면 행위동사가 *towards, along*과 같은 전치사와 결합할 때에는 문장의 종결성이 바뀌지 않고 [-telic]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up, through, down, over, around, across*와 같은 전치사는 행위동사와 결합 시 문장의 상황이나 문맥에 따라 [+telic]이 될 수도 있고, [-telic]이 될 수도 있다.

2.2 대응 한국어 동사구 종결성

전치사구 유형에 따른 영어 자동사구 종결성 습득에 있어 한국어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대응 한국어 동사구 종결성 판단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한국어 동사의 어휘상 분류는 정문수(1984)를 시작으로 이남순(1998), 이재성(2001), 염신현(2003), 박덕유(2009)에 의해 논의되어져 왔으며, 그 중 박덕유(2009)는 다음 표 3과 같이 한국어 동사의 어휘상 유형을 분류하였다.

표 3. 박덕유(2009)의 한국어 동사의 어휘상 유형 분류

동사의 종류	동사의 자질	대표 동사들
상태동사(states verb)	[-동태성(dynamic)], [-종결성(telic)]	길다, 짧다, 밝다, 크다
심리동사(psychological verb)	[-동태성(dynamic)]. [+종결성(telic)]	보다, 바라다, 믿다, 아파하다
행위동사(activity verb)	[+동태성(dynamic)]. [-종결성(telic)], [-순간성(punctual)]	부르다, 주다, 걷다, 읽다, 일하다, 마시다
변화동사(variation verb)	[+동태성(dynamic)], [+종결성(telic)], [-순간성(punctual)]	변하다, 확장하다, 늦추다, 내리다, 올리다
완수동사(accomplishment verb)	[+동태성(dynamic)], [+종결성(telic)], [-순간성(punctual)]	입다, 벗다, 신다, 매다, 단다, 열다, 만들다
순간동사(punctual verb)	[+동태성(dynamic)], [+종결성(telic)], [+순간성(punctual)], [-접근성(approximate)]	뛰어오르다, 때리다, 꼬집다
이행동사(performance verb)	[+동태성(dynamic)], [+종결성(telic)], [+순간성(punctual)], [+접근성(approximate)]	도착하다, 도달하다, 착륙하다, 멈추다, 읽다

(박덕유 2009: 128-129)

표 3의 한국어 동사의 어휘상 분류에 따르면 [+telic]자질을 가지는 동사는 심리동사(예, *보다, 바라다, 믿다, 아파하다* 등), 변화동사(예, *변하다, 확장하다, 늦추다, 내리다* 등), 완수동사(예, *입다, 벗다, 신다, 매다* 등), 순간동사(예, *뛰어 오르다, 때리다, 꼬집다* 등), 이행동사(예, *도착하다, 도달하다, 착륙하다* 등)이다. 즉, 심리동사, 변화동사, 완수동사, 순간동사, 이행동사는 문장 안에서 어떤 사건이나 행위에 대한 종결점을 가진다는 점에서 종결동사로 분류할 수 있다. 반면 상태동사, 행위동사는 영어와 마찬가지로 문장 안에서 어떤 사건이나 행위에 대한 종결점을 가지지 않아 비종결동사로 분류된다. 다음 예문(3)은 앞의 예문(2)의 대응 한국어 문장이다.

- (3) a. 알렉스는 수영했다. [-telic]
 b. 알렉스는 그 보트로 수영해 갔다. [±telic]
 c. 알렉스는 그 보트를 향하여 수영해 갔다. [-telic]

(3a)의 *수영했다* 는 박덕유(2009)의 어휘상 유형에 따라 행위동사에 속하며, [-telic]자질을 가진다. 반면 *그 보트로* 와 결합한 (3b)의 문장은 알렉스가 그 보트까지 도달하였을 수도 있지만 *그 보트로* 향하여 수영해가고 있는 중간 과정을 표현할 수도 있다. 즉, 전치사

to의 대응 한국어 조사는 ‘(이동 방향을 나타내며)-로, -을 향해서’라는 의미[-telic]와 ‘(도달지점을 나타내며) -까지’라는 의미[+telic]를 둘 다 가져서 상황이나 문맥에 따라 종결성의 판단이 달라진다. 마지막으로 (3c)의 문장은 그 보트를 향하여 수영해 갔기에 정확한 종결점이 나타나지 않아 영어와 마찬가지로 [-telic]이 된다. 다음 그림 1과 그림 2는 예문(2b)의 영어 문장과 대응 한국어 문장인 예문(3b)를 그림으로 비교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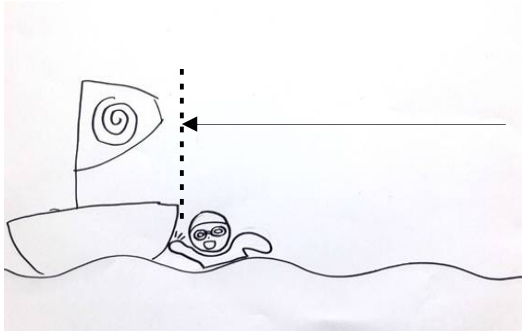


그림 1. 영어 전치사 ‘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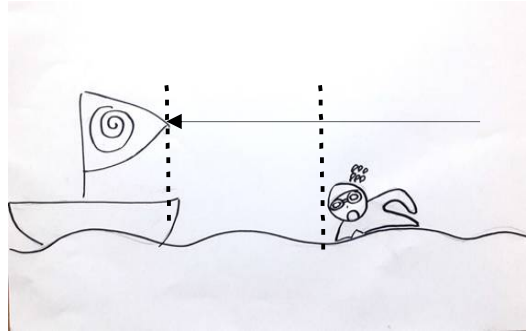


그림 2. 한국어 조사 ‘-로’

그림 1의 *Alex swam to the boat*는 알렉스가 그 보트에 도달하였다는 의미를 지니는 반면 그림 2의 대응 한국어 예문인 *알렉스는 그 보트로 수영해 갔다*를 보면 알렉스가 그 보트까지 도달하였을 수도 있지만 그 보트를 향하여 가고 있는 중간과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종결성 검증은 다음 예문(4)의 역접 접속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4) a. *Alex swam to the boat, but he got a cramp in his leg. Therefore he stopped halfway.
 b. 알렉스는 그 보트로 수영해 갔으나, 다리에 쥐가 났다. 결국 그는 도중에 멈추었다.

(4a)의 문장을 보면, 알렉스는 그 보트까지 수영해서 이미 갔기에 *but he got a cramp in his leg. Therefore he stopped halfway*라는 문장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반면 (4b)의 대응 한국어 문장에서는 알렉스가 그 보트까지 수영해 갔으나, 다리에 쥐가 나서 도중에 멈추었다는 문장이 자연스럽게 올 수가 있다. 이는 영어 전치사 *to*의 대응 한국어 조사의 의미가 상황이나 문맥에 따라 이동상황을 나타낼 수도 있고, 종결상황을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음 표 4는 표 2의 영어 전치사에 대응하는 한국어를 영한 사전적 의미*에 근거하여 나타낸 것이다.

* 영어 전치사에 대응하는 한국어 조사는 정확성을 위하여 네이버 영한사전, 다음 영한사전, 블루덕 영한사전 모두 3개의 영한사전을 참고로 하였다.

표 4. 영어 전치사에 대응하는 한국어

전치사 종류	영어 종결성 판단	대응 한국어
out of	[+telic]	-의 안에서 밖으로, -의 바깥에
onto		-위로, (방향을 나타내며) -쪽으로
into		-안으로, (방향을 나타내며) -으로
from		(출발지에서) -부터
off		(공간상의) 멀리로, (시간상의) 멀리
via		(어떤 장소를) 경유하여, 거쳐
away from		-에서 떠나서
past		(위치상) -을 지나서
to		(이동방향을 나타내며) -로, (도달지점을 나타내며) -까지
towards		(어떤 방향을 나타내며) -쪽으로, -을 향하여
along	[-telic]	-을 쭉 따라서
up		위로, 위쪽으로, 위에, 위쪽에
through	[±telic]	-을 통해, 관통하여, 사이로
down		(높은데서) 아래로, (바라보던 방향을) 따라 아래쪽으로
over		(다른 사람, 사물이 덮이도록) -위로, (다른 사람, 사물이 닿지 않게) -위로
around		둘레에, 주위에
across		가로질러, 가로로, 건너편에, 맞은편에, -전체에 걸쳐, (신체의 어느 부위)를, 에

표 4를 살펴보면, 영어 전치사에 대응하는 한국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상황이나 문맥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영어 전치사의 종결성 판단 여부와 대응 한국어의 종결성 판단 여부는 상황이나 문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2.3 종결성 전이 관련 선행 연구

제2외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종결성 연구는 종결성 또한 전이된다는 가정 하에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한국인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종결성 연구 또한 한국어 전이와 관련하여 연구가 진행 중이다(장혜진 2013, 최정인 2015, 2018, Oh 2015, 2017). 먼저 장혜진(2013)은 한국인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정관사 *the*와 지시대명사 *that, those*의 사용에 따른 종결성 판단의 차이를 살펴보았고, 그 결과 한국인 영어 학습자와 영어 원어민 화자는 정관사와 지시대명사 사용에 있어 종결성에 대한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최정인(2015)은 영어 능력에 따른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정사 사용에 있어 종결성 해석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연구하였고, 그 결과 영어 원어민 화자는 ‘전칭양화사 > 수사 > 부정관사 > 소유한정사 > 정관사 > 존재양화사 > 무관사’ 순서로 종결성을 인식하는 반면 한국인 상위그룹 영어 학습자는 무관사에서 다른 결

과를 보여주었으며, 또한 한국인 하위그룹 영어 학습자는 무관사, 정관사에서 서로 다른 순서의 종결성 척도를 나타낸다고 주장하며 영어 능력이 낮은 하위 그룹의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영향에 따른 종결성 판단을 한다고 강조하였다. 최정인(2018)에서는 영어 능력에 따른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동사의 상 유형, 목적어 유형, 전치사구 유형에 따른 종결성 판단을 이해 영역과 산출 영역에서 동시에 살펴보았으며, 영어 능력이 낮은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은 동사의 상 유형, 목적어 유형, 전치사구 유형에 따른 영어 동사구 종결성에 있어 모두 어려움이 나타났다. 또한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경우 동사의 상 유형에 따른 이해 영역 종결성 평가와 산출 영역 종결성 평가에서 서로 다른 종결성 판단을 보여주었으며, 더욱이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은 전치사 *to*에 따른 영어 동사구 종결성 판단에서 영어 능력과 무관하게 어려움을 나타내었다. Oh(2015)는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전치사 유형 중 장소 전치사(*in*)와 목표 전치사(*to*)에 따른 영어 동사구 종결성 습득을 연구한 결과 영어 능력이 낮은 한국인 영어 학습자일수록 한국어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다고 추측하였다.

마찬가지로 국외에서도 제2외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종결성 연구가 여러 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Gabriele 2010, Kaku-McDonald 2009, Slabakova 2000, Yin and Kaiser 2011, 류환 2012). Slabakova(2000)는 불가리아인 영어 학습자와 스페인인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영어 종결성 인식 양상을 실험하였고, 그 결과 영어 학습 능력이 낮은 하위 그룹 불가리아인 학습자일수록 종결성 습득에 있어 불가리아어의 영향이 높게 나타난 반면 스페인인 영어 학습자는 종결성 습득에 있어 어려움이 나타나지 않았다. Slabavoka(2000)는 스페인어의 경우 영어와 유사한 종결성 체계를 갖추었지만 불가리아어의 경우 영어와 다른 종결성 체계를 갖추었기에 불가리아인 영어 학습자의 경우 영어 능력이 낮은 그룹에서 불가리아어 전이가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Kaku-McDonald(2009)는 일본인 영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영어 동사구 종결성 인식 양상을 연구하였고 영어 능력이 낮은 하위 그룹의 일본인 영어 학습자들은 명사구 종결성 인식에 있어 일본어 영향에 따른 종결성 인식이 작용하여 종결성 인식 오류가 나타나는 반면 영어 능력이 높은 상위 그룹의 일본인 영어 학습자는 종결성 인식 오류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영어 능력이 낮은 학습자일수록 목표어 습득에 있어 모국어 전이가 나타난다는 Slabakova(2000)의 종결성 전이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한 Gabriele(2010)은 미국인 일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일본어 종결성 인식 양상을 연구하였고, 일본어 능력이 낮은 미국인 일본어 학습자일수록 영어 종결성 인식에 따른 종결성 오류가 나타났으며, 일본어 능력이 높은 미국인 일본어 학습자일수록 종결성 오류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유사하게 Yin과 Kaiser(2011)도 중국인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영어 동사구 종결성 인식 양상을 연구하였고, 그 결과 영어 능력이 낮은 중국인 영어 학습자일수록 중국어 영향에 따른 종결성 인식이 나타난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류환(2012)은 중국인 영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정관사 *the*사용에 따른 종결성 인식을 연구하였고, 그 결과 영어 학습 능력에 따라 종결

성 전이 양상에 차이가 나타났다고 제차 강조하였으며, 영어 능력이 낮은 중국인 영어 학습자일수록 무관사 언어인 중국어의 영향이 높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종결성 전이 관련 연구는 국내·외에서 여러 학자들의 관심을 받으며 제2외국어 학습에 있어 모국어 전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2외국어 학습에 있어 정확한 종결성 해석을 위해서는 각 언어에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종결성 매개변인들의 의미적 차이를 논의하여야 하며 학습자들의 중간언어(interlanguage) 사용을 통한 종결성 차이를 살펴보아야 한다.

3. 연구 방법 및 절차

3.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한 광역시 소재의 종합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인 영어 학습자 91명과 한국에 거주하며 영어강의를 하고 있는 영어 원어민 화자 11명으로 모두 102명이다.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은 여자 61명과 남자 3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나이는 19세에서 27세로 평균 21.82세이며 대학에서 실시하는 모의 토익 성적에 따라 상위그룹(48명), 하위그룹(43명)으로 분류되었다. 한국인 상위그룹 영어 학습자는 모의토익 점수 800점 이상(평균 857.50), 하위그룹 영어 학습자는 500점 이하(평균 425.75)로 구분하였다. 영어 원어민 화자들은 한국 소재의 초등학교, 대학교, 학원 등에서 강의하고 있는 영어 원어민 강사들로 여자 7명과 남자 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나이는 19세에서 40세로 평균 24세이다.

3.2 연구 도구

먼저, 영어 자동사구 종결성 해석의 의미적 척도를 평가하기 위해 행위동사와 결합하는 전치사의 유형을 Zwarts(2005)의 전치사 분류 기준을 토대로 분류하였다. Zwarts(2005)는 전치사 유형을 종결성 여부에 따라 분류하였고, 종결성을 가지는 전치사(bounded prepositions)는 *out of, onto, into, from, off, via, away from, past, to*이고, 종결성을 가지지 않는 전치사(unbounded prepositions)는 *towards, along*이라고 하였다. 또한 전치사 *up, through, down, over, around, across*는 상황이나 문맥에 따라 종결성을 가지기도, 또는 종결성을 가지지 않기도 하는 중의적 사용이 가능한 전치사로 구분하였다. 다음 표 5는 본 연구에 사용된 전치사의 유형을 보여준다.

표 5. 연구에 사용된 전치사 유형

종결성 여부	전치사 유형
[+telic]	out of, onto, into, from, off, via, away from, past, to
[-telic]	towards, along
[±telic]	up, through, down, over, around, across

본 연구에 사용된 동사는 Shirai와 Anderson(1995)의 동사 분류를 토대로 선정하였으며, Shirai와 Anderson(1995)이 제시한 4가지 동사 분류 중 계속성의 의미를 지니고 전치사와의 결합여부에 따라 임의적인 종결성을 가지는 행위동사들이다. 이들 동사는 모두 전치사의 유형에 따라 동사의 종결성이 [±telic]자질로 다르게 나타나기에 전치사 유형에 따른 자동사구 종결성 해석의 의미적 척도를 조사하기에 적합하다. 다음 표 6은 본 연구에 사용된 전치사 유형과 동사구를 보여준다.

표 6. 연구에 사용된 전치사와 동사구

전치사	동사구
1 out of	walk out of the hotel / come out of the bottle / roll out of the bag
2 onto	walk onto the platform / crash onto the beach / load onto the truck
3 into	drive into the hotel / walk into the hotel / go into the garden
4 from	leave from San Francisco / come from the north / walk from home
5 off	fall off the ladder / fall off his bike / drop off the tree
6 via	fly home via Dubai / go via Rome / go via the town
7 away from	run away from the accident / go away from the window / walk away from him
8 past	walk past us / drive past us / jog past us
9 to	drive to Los Angeles / walk to the office / run to the post office
10 towards	drive towards the mountain / swim towards the island / run towards the door
11 along	drive along the river / stroll along the lake / jog along the beach
12 up	climb up the flight of steps / climb up the tree / move up the top rung of the ladder
13 through	run through the grass / walk through the park / jog through the plaza
14 down	roll down the hill / slide down the hill / fell down the stairs
15 over	jump over the fence / rumble over the cobbles / jump over the gate
16 around	run around the lake / walk around the playground / jog around the lake
17 across	draw across the page / walk across the road / swim across the river

실험 참여자의 영어 자동사구 종결성 판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종결성 평가지에는 질문과 함께 그림을 제시하였다. 평가지에 사용된 그림은 모두 69개로, 51개의 종결성 평가 문항과 18개의 방해문장으로 구성되었다. 정확한 종결성 평가를 위해 그림은 모두 비종결적인 상황을 묘사하였고, 질문은 모두 과거형인 “Did + 주어 + 동사 + 전치사 + 전치사의 목적어?”의 형태로 하였다. 다음 그림3은 종결성 평가지 문항의 예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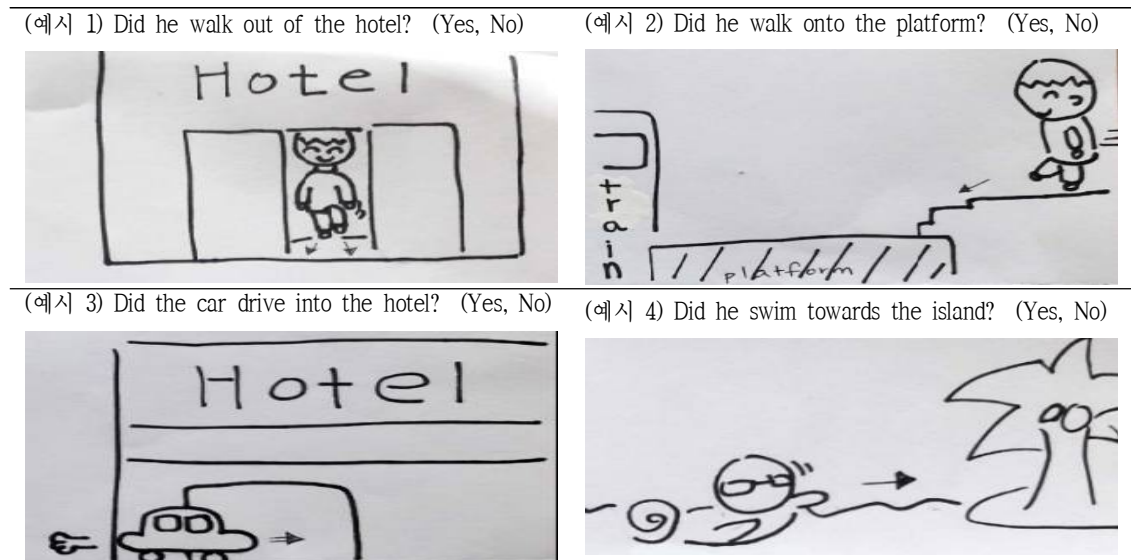


그림 3. 종결성 평가지 예시

그림 3에 나타난 (예시1)의 경우, 그림이 나타내고 있는 것은 한 남자가 호텔 안에서 밖을 향하여 걸어 나오고 있는 중으로 아직까지 호텔 밖으로 완전히 나오지 않은 비종결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예시 1)의 질문은 “Did he walk out of the hotel?”로, 질문에 “Yes”라고 대답을 한 경우는 “Did he walk out of the hotel?”을 “그는 호텔에서 나오고 있니?”로 비종결적으로 해석한 것이며, 질문에 “No”라고 대답을 하면 “Did he walk out of the hotel?”을 “그는 호텔에서 나왔니?”로 종결적으로 해석을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예시2-4) 또한 (예시1)과 마찬가지로 그림이 나타내고 있는 것은 모두 어떤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으며, 각 그림의 질문에 “Yes”라고 대답한 경우는 그 동사구를 비종결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질문에 “No”라고 대답한 것은 그 동사구를 종결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전치사 유형별 동사구의 종결성 해석의 의미적 척도를 알아보기 위해 질문에 “Yes”라고 답을 하면 -1점, “No”라고 답을 하면 1점으로 점수화하였다. 종결성 평가지는 정확한 실험을 위해 전치사 유형을 무작위 순서로 배정하였으며, 18개의 방해문장을 함께 주었다.

3.3 실험 절차 및 분석

본 연구는 다음의 절차에 의해 수행되었다. 먼저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한 광역시 소재 종합대학교 대학영어를 수강한 재학생들과 동일한 광역시 소재의 학교·학원 등에 근무하는 영어 원어민 화자들을 대상으로 종결성 평가를 배

부하였다. 모든 종결성 평가지는 51개의 영어 문장과 18개의 방해 문장으로 구성되었으며, 평가지의 모든 문장은 그림과 함께 제시되었고 각 문장을 읽고 논리적으로 참과 거짓을 판단하여 O나 X를 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경우 수업 중 30분간 실험을 시행하였으며 영어 원어민 화자들의 종결성 실험은 개인 시간에 맞추어 개인별로 30분씩 시행하였다. 모든 실험은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하에 시행되었으며, 실험 참여자들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란에는 성별, 나이만 기재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 수집된 자료 데이터를 입력하였다. 먼저, 모의토의 점수를 토대로 분류된 상위그룹과 하위그룹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과 영어 원어민 화자들의 종결성 평가지 답변을 토대로 O답변은 그 전치사를 비종결적으로 인식 및 사용한다고 간주하여 -1점, X답변은 그 전치사를 종결적으로 인식 및 사용한다고 간주하여 1점으로 점수화하였고 각 전치사 유형에 따른 종결성 평가 점수를 Excel파일로 작성·분류하였다. 이때 각 전치사에 대한 종결성 평가의 최고점은 3점이고, 최저점은 -3점이였다.

마지막으로 각 전치사 유형별 종결성 점수를 분류화 하였으며, SPSS 23.0을 이용하여 각 전치사 유형별 기술통계화 작업을 시행하였다. 각 전치사 유형별 종결성 평가 평균점수를 토대로 자료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영어능력에 의거한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과 영어 원어민 화자들의 전치사 유형별 종결성 해석의 의미적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 및 사후 다중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4. 결과 분석

다음 표 7은 영어 원어민 화자와 영어 수준별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의 전치사 유형에 따른 영어 동사구 종결성 평가에 대한 통계자료이다.

표 7. 전치사 유형에 따른 영어 동사구 종결성의 기술통계

등급		out of	onto	into	from	off	via	away from	past	to	towards	along	up	through	down	over	around	across
원어 민	평균	245	245	191	191	3.00	.82	3.00	-1.36	1.91	-3.00	-3.00	.27	-3.00	-3.00	.27	-3.00	-3.00
	N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표준 편차	1.809	1.809	2.427	2.427	.000	3.027	.000	2.803	2.427	.000	.000	3.133	.000	.000	3.133	.000	.000
상위	평균	.75	.75	-.13	-1.88	2.75	-.75	.12	.63	-.38	-.50	-1.38	.37	-1.00	-2.50	-.25	-2.50	-.50
	N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표준 편차	2.935	2.935	3.029	2.367	1.212	2.935	3.029	2.965	3.006	2.989	2.695	3.006	2.858	1.676	3.021	1.676	2.989
하위	평균	-2.16	.35	-1.74	-2.44	2.44	-.35	-1.47	-.49	-1.74	-2.44	-1.05	-2.00	-1.33	-1.74	-1.88	-1.88	-2.44
	N	43	43	43	43	43	43	43	43	43	43	43	43	43	43	43	43	43
	표준 편차	2.104	3.015	2.470	1.763	1.763	3.015	2.649	2.995	2.471	1.763	2.845	2.241	2.723	2.470	2.362	2.362	1.763

표 7은 영어 원어민 화자 11명, 한국인 상위그룹 영어 학습자 48명과 한국인 하위그룹 영어 학습자 43명의 전치사 유형에 따른 영어 동사구 종결성 평가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보여준다.

4.1 전치사 유형에 따른 영어 동사구 종결성 평가 척도

다음 표 8은 위 표 7에서 영어 수준별 그룹의 전치사 유형에 따른 영어 동사구 종결성의 평균을 취합하여 종결성 평가가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이때 각 전치사 유형별 영어 동사구 종결성 평가의 평균이 0점 이상이면 종결적으로, 0점 미만이면 비종결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8. 전치사 유형에 따른 영어 동사구 종결성 평가 척도

평균	out of	onto	into	from	off	via	away from	past	to	towards	along	up	through	down	over	around	across
원	2.45	2.45	1.91	1.91	3.00	.82	3.00	-1.36	1.91	-3.00	-3.00	.27	-3.00	-3.00	.27	-3.00	-3.00
	off, away from > out of, onto > into, from, to > via > up, over > past > towards, along, through, down, around, across																
상	.75	.75	-1.13	-1.88	2.75	-7.5	.12	.63	-3.8	-5.0	-1.38	.37	-1.00	-2.50	-2.5	-2.50	-5.0
	off > out of, onto > past > up > away from > into > over > to > towards, across > via > through > along > from > down, around																
하	-2.16	.35	-1.74	-2.44	2.44	-3.5	-1.47	-.49	-1.74	-2.44	-1.05	-2.02	-1.33	-1.74	-1.88	-1.88	-2.44
	off > onto > via > past > along > through > away from > into, to, down > over, around > up > out of > from, towards, across																

*볼드체로 표시한 전치사는 종결성 평가가 종결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표 8을 보면, 먼저 영어 원어민 화자들의 전치사 유형별 영어 동사구 종결성 평가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종결성이 평가되었다.

1) *off, away from > out of, onto > into, from, to > via > up, over > past > towards, along, through, down, around, across*

이때, 영어 원어민 화자들의 영어 동사구 종결성 결과는 Zwarts(2005)의 전치사 유형별 종결성 판단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Zwarts(2005)는 *off, away from, out of, onto, into, from, to, via, past*는 종결성을 가지는 전치사이고, *towards, along*은 비종결성을 가지는 전치사로 판단하였다. 또한 *through, down, around, across, over, up*는 상황이나 문맥에 따라 종결성과 비종결성을 모두 가지는 중의적 전치사로 판단하였다. 다만 Zwarts(2005)는 전치사 *past*의 경우 종결성을 가지는 전치사로 분류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종결성의 척도가 -1.36으로 다소 비종결적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상위그룹 영어 학습자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종결성이 평가되었다.

2) *off > out of, onto > past > up > away from > into > over > to > towards, across > via > through > along > from down, around*

이때, *off, out of, onto, past, up, away from*의 경우 영어 원어민 화자와 유사하게 종결적으로 판단하였지만 나머지 전치사들은 모두 비종결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인 하위그룹 영어 학습자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종결성이 평가되었다.

3) *off > onto > via > past > along > through > away from > into, to down > over, around > up > out of > from, towards, across*

한국인 하위그룹 영어 학습자는 *off, onto*만 종결적으로 판단하였을 뿐 그 외 전치사 모두 비종결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최정인(2016), Oh(2015)의 주장과 같이 영어 전치사에 대응하는 한국어 조사는 상황이나 문맥에 따라 종결성과 비종결성을 중의적으로 가지고 있기에 한국인이 인지하는 영어 전치사와 영어 원어민 화자가 인지하는 영어 전치사는 다소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림 4는 실험 참여자들의 전치사 유형에 따른 영어 자동사구 종결성 평가의 의미적 척도를 비교, 분석한 그래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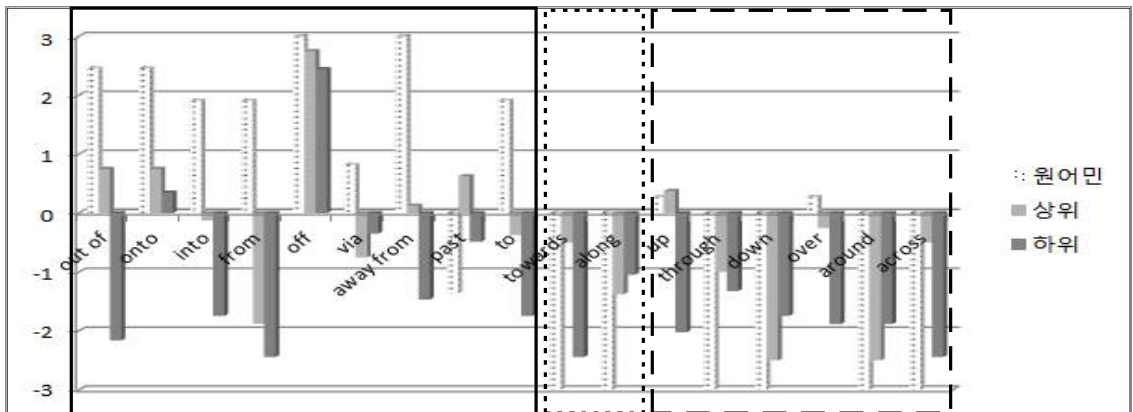


그림 4. 전치사 유형에 따른 영어 자동사구 종결성 평가의 의미적 척도 비교

Zwarts(2005)의 연구에 따르면 그림 4의 *out of, onto, into, from, off, via, away from, past, to*는 종결지점을 드러내는 영어 전치사로 [+telic]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전치사 *past*

는 실제 영어 원어민의 종결성 평가에서 비종결적으로 인식한다고 나타났다. 이 결과는 Oriela, Schmitt와 Casby(2014)의 연구에서와 같이 실제 영어 원어민 화자의 언어 사용에 있어 종결성 판단은 이론적 연구와 다르게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경우, 전치사 *off*에 대한 종결성 평가를 제외한 나머지 전치사 유형별 종결성 평가에서 평가 점수가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영어 성적이 낮은 하위그룹 영어 학습자일수록 전치사에 따른 종결성 평가 점수가 매우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인 영어 학습자는 영어 전치사에 대응하는 한국어 조사의 종결성 판단에 따른 인식으로 영어 전치사 종결성 인식에서 오류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게 하며, 이는 최정인(2018)의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전치사 *to*에 따른 영어 동사구 종결성 인식에 대한 연구결과와 동일하다. 그러나 전치사 *off*의 경우 상위그룹 한국인 영어 학습자와 하위그룹 한국인 학습자 모두 영어 원어민 화자와 마찬가지로 종결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영어 전치사 *off*는 의미적으로 A와 B라는 두 개체가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떨어져 있는 관계 또는 이탈되어 있는 관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종결성을 가지며, 이에 대응 한국어 조사 또한 '<어떤 공간상의> 멀리로, <공간, 시간상의> 멀리, 또는 무엇이 이미 제거되었음을 나타냄'으로 종결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한국인 영어 학습자는 영어 전치사 *off*의 종결성 평가에서는 영어 원어민과 동일한 판단을 보여준다고 추측할 수 있다.

또한 Zwarts(2005)의 연구에 따르면 그림 4의 영어 전치사 *towards, along*은 비종결성을 가지는 전치사로 [-telic]으로 분류되며, 영어 원어민 화자와 한국인 영어 학습자 모두 비종결적으로 판단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Zwarts(2005)는 영어 전치사 *up, through, down, over, around, across*는 상황이나 문맥에 따라 종결성을 가질 수도 있으며, 비종결성을 가질 수도 있어 [+telic]으로 분류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체적으로 비종결적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실험의 종결성 평가지에서 묘사된 그림이 모두 종결상황이 아닌 비종결 상황을 묘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예측한다.

4.2 각 그룹별 영어 자동사구 종결성 평가의 의미적 척도

각 그룹(원어민, 한국인 상급 영어 학습자, 한국인 하급 영어 학습자)을 대상으로 전치사 유형별 영어 자동사구 종결성 평가의 의미적 척도가 동일한지 살펴보았다. 다음 표 9는 영어 원어민 화자와 영어능력에 따른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의 전치사 유형별 영어 자동사구 종결성 평가의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9. 일원배치 분산분석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out of	집단간	285.589	2	142.794	22.670	.000
	집단내	623.588	99	6.299		
	전체	909.176	101			
onto	집단간	38.858	2	19.429	2.347	.101
	집단내	819.495	99	8.278		
	전체	858.353	101			
into	집단간	136.361	2	68.180	9.044	.000
	집단내	746.345	99	7.539		
	전체	882.706	101			
from	집단간	168.413	2	84.206	18.412	.000
	집단내	452.764	99	4.573		
	전체	621.176	101			
off	집단간	3.689	2	1.845	.915	.404
	집단내	199.605	99	2.016		
	전체	203.294	101			
via	집단간	22.302	2	11.151	1.257	.289
	집단내	898.404	99	8.873		
	전체	999.706	101			
away from	집단간	186.405	2	93.203	12.710	.000
	집단내	725.948	99	7.333		
	전체	912.353	101			
past	집단간	49.107	2	24.554	2.799	.066
	집단내	868.540	99	8.773		
	전체	917.647	101			
to	집단간	126.831	2	63.416	8.480	.000
	집단내	740.345	99	7.478		
	전체	867.176	101			
towards	집단간	110.101	2	55.051	9.898	.000
	집단내	550.605	99	5.562		
	전체	660.706	101			
along	집단간	33.549	2	16.774	2.438	.093
	집단내	681.157	99	6.880		
	전체	714.706	101			

표 9의 일원배치 분산분석표 17가지의 영어 전치사 중 영어 능력에 따른 한국인 영어 학습자와 영어 원어민 화자간의 종결성 평가 차이를 논의할 수 있는 9가지의 종결성을 가지는 전치사 *out of*, *onto*, *into*, *from*, *off*, *via*, *away from*, *past*, *to*를 살펴보면, *onto*, *off*, *via*, *past*를 제외한 나머지 5가지의 동사에서 집단 간의 유의확률이 0.05이하로 나타났다. 이는 종결성을 가지는 영어 전치사 중 *out of*, *into*, *from*, *away from*, *to*에서 영어 원어민 화자·상위그룹·하위그룹 간 영어 동사구의 종결성 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종결성을 가지지 않는 전치사 *towards*와 *along*을 살펴보면, *towards*에서 영어 원어민 화자·상위그룹·하위그룹 간 유의확률이 0.05이하로 나타났다. 이는 영어 원어민 화자와 한국인 영

어 학습자 모두 *towards*와 *along*을 비종결적으로 인식하더라도 종결성의 척도에서 차이가 나타남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전치사 *up, through, down, over, around, across*는 상황이 나 문맥에 따라 종결성을 가질 수도 있고, 비종결성을 가질 수도 있기에 각 집단 간의 차이는 논의하지는 않겠다.

세 그룹 간 영어 종결 동사의 종결성 인식의 차이를 더욱 명확히 살펴보기 위해 다중 비교를 실시하였다. 다음 표 10은 영어 원어민 화자들과 수준별 영어 학습자들 간의 영어 전치사 유형에 따른 종결성 평가를 다중 비교·분석한 것이다.

표 10. 다중 비교

종속변수	(I)그룹	(J)그룹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out of	원어민	상위	1.705	.839	.045	.04	3.37
		하위	4.617	.848	.000	2.93	6.30
	상위	하위	2.913	.527	.000	1.87	3.96
into	원어민	상위	2.034	.918	.029	.21	3.86
		하위	3.653	.928	.000	1.81	5.49
	상위	하위	1.619	.577	.006	.48	2.76
from	원어민	상위	3.784	.715	.000	2.37	5.20
		하위	4.351	.723	.000	2.92	5.78
	상위	하위	.567	.449	.210	-.32	1.46
away from	원어민	상위	2.875	.905	.002	1.08	4.67
		하위	4.465	.915	.000	2.65	6.28
	상위	하위	1.590	.569	.006	.46	2.72
to	원어민	상위	2.284	.914	.014	.47	4.10
		하위	3.653	.924	.000	1.82	5.49
	상위	하위	1.369	.574	.019	.23	2.51
towards	원어민	상위	-2.500	.788	.002	-4.06	-0.94
		하위	-.558	.797	.485	-2.14	1.02
	상위	하위	1.942	.495	.000	.96	2.92

표 10의 다중 비교·분석을 살펴보면 종결성을 가지는 영어 전치사(*out of, onto, into, from, off, via, away from, past, to*) 중 *off*와 *via*를 제외한 나머지 *out of, onto, into, from, away from, past, to*에서 영어 원어민과 한국인 영어 학습자(상위그룹, 하위그룹) 간의 종결성 평가에서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영어 원어민 화자들은 종결성을 가지는 전치사 중 *past*를 제외한 나머지 8가지의 전치사 *out of, onto, into, from, off, via, away from, to*는 종결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한국인 상위그룹 영어 학습자들은 종결성을 가지는 전치사 중 *into, from, via, to*를 비종결적으로 평가하였고, 나머지 5가지 전치사인 *out of, onto, off, away from, past*는 종결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한국인 하위그룹 학습자들은 종결성을 가지는 전치사 중 *out of, into, from, via, away from, past, to*를 비종결적으로 평가하였고, 나머지 2가지 전치사인 *onto*와 *off*만 종결성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영어 능력이 낮은 한국인 영

어 학습자일수록 종결성을 가지는 전치사를 비종결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비종결성을 가지는 전치사 *towards*와 *along*를 살펴보면, 영어 원어민 화자는 모두 비종결적으로 평가하였고, 한국인 영어 학습자(상위그룹, 하위그룹) 또한 마찬가지로 비종결적으로 평가하였으나, 한국인 상급 영어 학습자의 경우 *towards*에 대한 종결성 평가의 척도에서 영어 원어민 화자와 차이가 발생하였고, 한국인 하급 영어 학습자의 경우 *along*에 대한 종결성 평가의 척도에서 영어 원어민 화자와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비종결성을 가지는 전치사라 하더라도, 한국인 영어 학습자가 인식하는 비종결성과 영어 원어민 화자가 인식하는 비종결성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한국인 영어 학습자와 영어 원어민 화자간의 전치사 유형별 종결성 평가에서 종결성 평가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각 집단 간 종결성 평가 차이가 발생하는 전치사와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의 의미를 대조하여 살펴보겠다.

먼저, 종결성을 가지는 전치사 중 *out of*에 대응하는 한국어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의 안에서 밖으로, 바깥에’로 ‘안에서 밖을 향한다’는 비종결적 의미와 ‘바깥에 있다’는 종결적 의미를 모두 가질 수 있다. 두 번째, 종결성을 가지는 전치사 중 *onto*에 대응하는 한국어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위로, (방향을 나타내며) -쪽으로’로 ‘어느 방향을 향한다’는 비종결적 의미와 ‘이미 -위로 있다’는 종결적 의미를 모두 가질 수 있다. 세 번째, 종결성을 가지는 전치사 중 *into*에 대응하는 한국어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안으로, (방향을 나타내며) -으로’로 어느 방향을 나타내며 ‘-으로 향한다’는 비종결적 의미와 ‘-안으로 이미 들어가 있다’는 종결적 의미를 모두 가질 수 있다. 네 번째, 종결성을 가지는 전치사 중 *from*에 대응하는 한국어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출발지에서) -부터’로 ‘-로부터 오고 있다’는 비종결적 의미와 ‘-로부터 이미 왔다’는 종결적 의미를 모두 가질 수 있다. 다섯 번째, 종결성을 가지는 전치사 중 *away from*에 대응하는 한국어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에서 떠나서’의 의미로 ‘-에서 떠나서 가고 있다’는 비종결적 의미와 ‘이미 그 장소를 떠났다’는 종결적 의미 모두 가질 수 있다. 여섯 번째, 종결성을 가지는 전치사 중 *past*에 대응하는 한국어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위치상) -을 지나서’로 ‘어느 장소를 지나가고 있다’는 비종결적 의미와 ‘이미 그 장소를 지나쳤다’는 종결적 의미를 모두 가질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영어 원어민 화자의 영어 전치사 *past*에 대한 종결성 평가 또한 다소 비종결적으로 나타났기에 영어 원어민 화자 또한 대응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어느 장소를 지나가고 있다’는 비종결적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고 추측된다. 일곱 번째, 종결성을 가지는 전치사 중 *to*에 대응하는 한국어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동방향을 나타내며) -쪽으로, (도달지점을 나타내며) -까지’로 어느 방향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비종결적 의미와 이미 도달지점까지 도착하였다는 종결적 의미를 모두 가질 수 있다. 즉, 영어 전치사 중 *out of*, *onto*, *into*, *from*, *away from*, *past*, *to*는 종결성을 가지는 전치사로 분류되는 반면 이에 대응하는 한국

* 영어 전치사에 대응하는 한국어 의미의 정확성을 위해 네이버 영한사전, 다음 영한사전, 블루덕 영한사전 모두 3개의 영한사전을 참고로 하였다.

어는 종결성과 비종결성을 모두 가질 수 있기에 영어 능력이 낮은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은 한국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와 유사하게 김은일(2014)은 영어와 한국어의 종결성에 대한 차이점을 목표점과 수령자에 대한 유생성의 차이로 설명하며 다음 예시를 들었다.

- (5) a. 영화가 서울에 갔다. (목표점)
b. 영화가 철수에게 책을 주었다. (수령자)
- (6) a. Mary went to London. (목표점)
b. Mary gave a book to John. (수령자)

(김은일 2014: 9)

김은일(2014)은 한국어 예시(5a)의 목표점은 무생물이기에 사건에서 방향의 참조점으로만 제시될 뿐 적극적인 참여는 전혀 암시되지 않는 반면, 영어 예시 (6a)의 목표점은 서술어가 묘사하는 이동 행위의 종점이라는 종결성을 갖는다고 설명한다. 반면 한국어 예시(5b)의 수령자는 유생물이기에 영어 예시 (6b)와 마찬가지로 소유관계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기에 두 언어 모두 종점이라는 실질적인 종결성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한국어와 영어의 격체계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각기 부호화하고 있으며,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은 영어 학습에 있어 한국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다음 표 11은 Zwarts(2005)의 영어 전치사 유형별 종결성 판단과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종결성 평가 평균 점수를 토대로 영어 원어민 화자와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영어 전치사 유형별 종결성 평가의 차이를 도표화한 것이다.

표 11. 영어 원어민과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전치사 유형별 종결성 평가 비교

영어 전치사	Zwarts(2005)의 종결성 판단	영어 원어민 화자	한국인 영어 학습자(상급)	한국인 영어 학습자(하급)
out of	[+telic]	[+telic]	[+telic]	[-telic]
onto	[+telic]	[+telic]	[+telic]	[+telic]
into	[+telic]	[+telic]	[-telic]	[-telic]
from	[+telic]	[+telic]	[-telic]	[-telic]
off	[+telic]	[+telic]	[+telic]	[+telic]
away from	[+telic]	[+telic]	[+telic]	[-telic]
past	[+telic]	[-telic]	[+telic]	[-telic]
via	[+telic]	[+telic]	[-telic]	[-telic]
to	[+telic]	[+telic]	[-telic]	[-telic]
towards	[-telic]	[-telic]	[-telic]	[-telic]
along	[-telic]	[-telic]	[-telic]	[-telic]

표 11과 같이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은 영어 능력이 낮을수록 종결성을 가지는 영어 전치사 *out of, into, from, away from, past, to*의 종결성 판단에서 한국어 영향에 의해 영어 원어민 화자와 다른 종결성 평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반면 영어 전치사 *off*의 경우 영어 원어민 화자와 마찬가지로 한국인 영어 학습자 또한 종결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영어 전치사 *via*의 경우 영어 원어민 화자는 종결적으로 평가하였고,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은 비종결적으로 평가하였으나, 그 평가 점수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아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영어 전치사 유형에 따른 영어 자동사구 종결성 평가를 종결성 평가 평균 점수의 순서와 척도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은 영어 능력이 낮을수록 모국어 전이에 의해 종결성 판단이 영어 원어민 화자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영어 능력이 높을수록 모국어의 영향을 덜 받고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반면 비종결성을 가지는 영어 전치사 *towards*와 *along*의 경우 한국인 영어 학습자 또한 영어 원어민 화자와 마찬가지로 비종결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종결성 평가 점수에서는 영어 원어민 화자와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다루었던 영어 전치사 *up, through, down, over, around, across*는 상황이나 문맥에 따라 종결성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에 영어 원어민 화자와 한국인 영어 학습자 간의 종결성 평가 차이를 논의하지 않겠다.

5. 결론

본 연구는 영어 원어민 화자와 영어 능력에 따른 한국인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전치사 유형별 영어 자동사구 종결성 해석에 있어 종결성 평가의 척도 차이와 원인을 예측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전치사 유형에 따른 한국인 영어 학습자와 영어 원어민 화자의 영어 자동사구 종결성 평가를 비교·분석한 결과, 영어 원어민 화자는 ‘*off, away from > out of, onto > into, from, to > via > up, over > past > towards, along, through, down, around, across*’ 순서로 종결성을 평가하는 반면 한국인 상위그룹 영어 학습자는 ‘*off > out of, onto > past > up > away from > into > over > to > towards, across > via > through > along > from down, around*’ 순서로 종결성을 평가하였고, *off, out of, onto, past, up, away from*의 경우 영어 원어민 화자와 유사하게 종결적으로 판단하였지만 나머지 전치사들은 비종결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발생한다. 또한 한국인 하위그룹 영어 학습자의 경우 ‘*off > onto > via > past > along > through > away from > into, to down > over, around > up > out of > from, towards, across*’ 순서로 종결성을 높게 인식하였고, *off, onto*만 종결적으로 판단하였을 뿐 그 외 전치사 모두 비종결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최정인(2018), Oh(2015)의 주장과 같이 영어 전치사에 대응하는 한국어 조사는 상황이나 문맥에 따라 종결성과 비종결성을 중의적으로 가지

고 있기에 한국인이 인지하는 영어 전치사와 영어 원어민 화자가 인지하는 영어 전치사는 다소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영어 능력에 따른 한국인 영어 학습자와 영어 원어민 화자간의 전치사 유형별 영어 자동사구 해석의 다중비교 분석결과,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은 종결성을 가지는 영어 전치사 *out of, onto, into, from, off, via, away from, past, to*에 대한 종결성 평가에서 연구 결과, 영어 원어민 화자는 9개의 종결성을 가지는 전치사(*out of, onto, into, from, off, via, away from, past, to*) 중 *past*를 제외한 나머지 8개의 전치사를 모두 종결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한국인 상급 영어 학습자는 9개의 종결성을 가지는 전치사 중 5개의 전치사(*out of, onto, off, away from, past*)는 종결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나머지 4개의 전치사(*into, from, via, to*)는 비종결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한국인 하급 영어 학습자는 9개의 종결성을 가지는 전치사 중 2개의 전치사(*onto, off*)를 제외한 나머지 7개의 전치사(*out of, into, from, via, away from, past, to*)를 비종결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영어 능력이 낮은 한국인 영어 학습자일수록 한국어 종결성 판단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추측가능하게 하며, 또한 제2외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종결성 습득에 관해 연구한 Slabakova(2000), Kaku-McDonald(2009), Oh(2015)의 연구에서 영어 능력이 낮은 학습자일수록 외국어 학습에 있어 모국어의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와 유사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종결성은 특정 문법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화자와 청자 간의 대화에서 각 문장에 대한 종결성 판단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정확한 대화의 맥락을 구분시켜주는 의미적 요소로 제2외국어 학습에 있어 종결성 습득과 관련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존 종결성 관련 연구에서 보여주었듯이 영어 학습자들이 전치사 유형별 영어 자동사구 종결성 평가에서도 모국어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더욱이 영어 능력이 낮은 영어 학습자일수록 종결성 판단 오류가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기존의 한국인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종결성 관련 연구는 대부분 목적어 유형을 중심으로 영어 동사구 종결성 평가 차이를 통한 모국어 전이를 다루고 있으며, 영어 전치사를 다룬 종결성 연구의 경우 장소 전치사 *in*과 목표 전치사 *to*에 따른 차이만을 논의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17개의 영어 전치사 유형을 모두 다룸으로써 전치사 유형별 영어 자동사구 종결성 평가의 구체적 척도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전치사 유형별 영어 자동사구 종결성 해석의 구체적 척도는 한국인 영어 학습자로 하여금 효과적인 전치사 사용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대화의 정확한 맥락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어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더욱이 종결성을 가지는 영어 전치사와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의 종결성이 차이가 난다는 결과는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영어 전치사 의미에 이해도를 높여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영어 전치사 교육 방안을 연구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전치사 교육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종결성을 가지는 영어 전치사 *past*의 경우 영어 원어민 화자들이 실제 언어 사용

에 있어서 다소 비종결적으로 평가한다는 연구 결과는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인 ‘(위치상) -을 지나서’와 마찬가지로 결과가 아닌 어떤 행위나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전치사로도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본 연구는 모두 그림을 통한 영어 평가지로 구성되어 정확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동영상과 같은 실제 상황을 묘사하는 영상을 통한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과거시제 의문문을 통한 종결성 검증이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 검증 수단이 아닌 다양한 종결성 검증 수단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종결성 관련 후속 연구는 영상매체를 통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의 다양한 종결성 검증 수단을 통한 종결성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영어 동사구 종결성 인식을 다루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 김은일(Kim, E.). 2014. 사역사건 유발에 대한 다른 세계관: 유생성과 행위자성(Two contrasting viewpoints on instigating causative events: Animacy and agentivity). 《언어과학》(*Journal of Language Sciences*) 21-1, 1-19.
- 김천학(Kim, C.). 2014. 한국어 동사 종결성(Telicity)에 대한 연구(The study on the telicity in Korean verbs). 《언어와 정보사회》(*Language & Information Society*) 21, 23-51.
- 노명현(Noh, M.). 2014. 영한 동사의 종결상 연구(Aspectual differences between English telic verbs and their Korean counterparts). 《현대영미어문학》(*The Journal of Modern British & American Language & Literature*) 32, 103-126.
- 류환(Liu, H.). 2012. 중국인 영어 학습자의 관사 the의 종결성 습득에 관한 연구(*Acquisition on Telicity of English Article the by Chinese Speakers*). 석사학위논문(Unpublished master's thesis), 서울대학교(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Seoul).
- 박기성(Park, K.). 2016. 한국어 이동사건 표현과 종결성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interaction between expressions of motion events and telicity in Korean). 《언어과학》(*Journal of Language Sciences*) 23-3, 73-89.
- 박덕유(Park, D.). 2009. 『한국어의 相 이해』(*Understanding of Korean Aspects*). 서울(Seoul): 제이앤씨(J&C).
- 염신현(Yeom, S.). 2003. 종결상 함의정도에 의한 한국어 동사 분류: 통계적 방법을 중심으로(*Aspectual Classification of Verbs in Korean : A Statistical Perspective*). 석사학위논문(Unpublished master's thesis), 서울대학교(Seoul National University),

- 서울(Seoul).
- 이기동(Lee, K.). 1998. 영어 전치사 연구(*A Study of English Prepositions*). 서울 (Seoul): 교문사(Gyomunsa).
- 이남순(Lee, N.). 1998. 피동과 사동의 문형(Structures of passive and causative). 《국어학》(*Journal of Korean Linguistics*) 13, 65-93.
- 이재성(Lee, J.). 2001. 『한국어의 시제와 상』(*Tenses and Aspects of Korean*). 서울 (Seoul): 국학자료원(Kookhak).
- 장혜진(Jang, H.). 2013.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관사 the의 종결성 습득에 관한 연구 (*Acquisition on Telicity of English Article the by Korean Speakers*). 석사학위논문(Unpublished master's thesis), 건국대학교(Konkuk University), 서울(Seoul).
- 정문수(Jung, M.). 1984. 상적 특성에 따른 한국어 풀이씨의 분류(Classification of Korean predicates by aspectual characters). 《문법연구》(*A Study of Grammar*) 5, 51-85.
- 최정인(Choi, J.). 2015.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영어 동사구 종결성 해석에 관한 연구: 한정사를 중심으로(A study of interpretation of English verb phrase telicity by Korean learners of English: Focus on determiner types). 《영어학》(*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15-4, 663-690.
- 최정인(Choi, J.). 2016.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모국어 전이에 관한 연구: 영어 종결동사를 중심으로(A study on the native language transfer in the use of English telic verbs of Korean English learners). 《영어학》(*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16-2, 285-309.
- 최정인(Choi, J.). 2018.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영어 동사구 종결성 인식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Perception of English Verb Phrase Telicity by Korean English Learners*). 박사학위논문(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부산대학교(Pusan National University), 부산(Busan).
- Celce-Murcia, M. and D. Larsen-Freeman. 1999. *The Grammar Book: An ESL/EFL Teacher's Course*. Boston, MA: Heinle, Cengage Learning.
- Cowan, R. 2008. *The Teacher's Grammar of English: A Course Book and Reference Guide*.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owty, D. 1979. *Word Meaning and Montague Grammar*. Dordrecht, The Netherlands: Kluwer.
- Gabriele, A. 2010. Deriving meaning through context: Interpreting bare nominals in L2 Japanese. *Second Language Research* 26, 379-405.
- Jackendoff, R. 1972. *Semantic Interpretation in Generative Grammar*. Cambridge, MA: MIT Press.

- Kaku-MacDonald, K. 2009. *Acquisition of Telicity in L2: A Psycholinguistic Study of Japanese Learners of English*.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Ottawa, Ottawa.
- Kim, J. T. 2015. Korean EFL learners' acquisition of telicity in locatum structures.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 21(3), 165-185.
- Ogiela, D., C. Schmitt and M. Casby. 2014. Interpretation of verb phrase telicity: Sensitivity to verb type and determiner type.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57, 865-875.
- Oh, E. J. 2015. The acquisition and interpretation of English telicity by Korean speakers.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 21, 79-101.
- Shirai, Y. and R. Andersen. 1995. The acquisition of tense/aspect morphology: A prototype account. *Language* 71, 743-762.
- Slabakova, R. 2000. L1 transfer revisited: The L2 acquisition of telicity marking in English by Spanish and Bulgarian native speakers. *Linguistics* 38(4), 739-770.
- Vendler, Z. 1967. *Linguistics in Philosophy*.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Verkuyl, H. 1993. *A Theory of Aspectuality: The Interaction between Temporal and Atemporal Structure*. Cambridge, United Kingdom: Cambridge University Press.
- Yin, B. and E. Kaiser. 2011. Chinese speakers' acquisition of telicity in English. In G. Grandner, J. Keith, S. Lee-Ellis, A. Lukyanenko, G. P. Botana and E. Rhoades, eds., *Selected Proceedings of the 2010 Second Language Research Forum*. Somerville, 182-198. MA: Cascadilla Proceedings Project.
- Zwarts, J. 2005. Prepositional aspect and the algebra of paths. *Linguistics and Philosophy* 28(6), 739-779.

예시언어(Examples in): 영어(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영어(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 모든 수준(All)

최정인(Choi, Jeungin)

박사후연수과정 연구원(Postdoctoral Researcher)

영어영문학과(Dep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부산대학교(Busan University)

부산광역시(Busan 46241, Korea)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Busan Daehak-ro 63-2, Keumjeong-gu)

Tel: 051-510-1510

E-mail: learningpeople@hotmail.com

장경철(Chang, Kyungchul)

교수(Professor), 영어영문학과(Dep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부산대학교(Busan University)

부산광역시(Busan 46241, Korea)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Busan Daehak-ro 63-2, Keumjeong-gu)

Tel: 051-510-2033

E-mail: seodaebu@pusan.ac.kr

논문 접수(Received): 2018년 10월 30일

논문 수정(Revised): 2018년 12월 12일

게재 확정(Accepted): 2018년 12월 16일